朝鮮朝 初期 韓國農學의 成立過程
古農書를 중심으로

金 榮 鎭
副院長, Ph.D. (作物學)

Ⅰ. 韓國農書 形成에 관한 硏究의 意義
Ⅱ. 鮮初 이전의 우리 農業과 農書利用
Ⅲ. 鮮初 이전에 이용된 주요 中國農書
Ⅳ. 休閑農法의 克服과 農業技術改善
Ⅴ. 農法改善에 따른 過渡期農書(抄錄本)의 形成

Ⅰ. 韓國農書 形成에 관한 硏究의 意義

A. D年代 이전에 저술된 「神農書」 이후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19世紀末까지 東洋에서만도 수많은 農書가 편찬되어 왔다. 이들의 農書들은 대부분 農業技術改善을 중심으로, 농서에 따라서는 일부 經營 및 政策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게 보통이다.

이들의 農書가 편찬된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개선된 技術, 經營, 政策의 보급확산을 위한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편찬되어 왔다. 그러므로 각종 農書들은 편찬 당시까지 모든 智慧를 다하여 발전시켜온 技術과 科學의 總和라고 볼 수 있으며 그 時代의 기술과 과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農書를 통하여 農業發展의 지나온 발자취를 알아볼 수 있고 각 시대의 기술이나 生産水準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農書硏究는 각 시대간의 生産 및 技術 수준을 體系化하는 農業技術史나 生産 및 技術의 源泉인 農業의 學問的 發展과정을 體系化하는 農學史, 그리고 시대간의 社會構造나 그 변동과정을 체계화하는 社會經濟史 연구 등의 가장 기초적인 연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本稿는 어느 특정농서를 고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特定時代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農書利用의 起源과 來歷을 밝히고 우리 風土 중심의 農學과 農書가 어떻게 形成發展되어 왔나를 體系化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高麗朝에서 우리가 이용하던 中國農書들은 어떤 것이며 그후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한 우리 風土 중심의 韓國農書가 형성되기 이전에 過渡期 農書인 中國農書의 抄錄本들은 어떤 農業的 배경과 필요성 때문에 존재하였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 農書 및 技術史 연구의 지름길이며 가장 초보적 수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先學들이 이미 편편히 엮은 바 있으나 아직 體系的으로 종합한 바 없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同學의 참고

에 자하고자 하는 바이다.

Ⅱ. 鮮初 이전의 우리 農業과 農書利用

三國시대나 高麗시대를 통하여 현재까지 전하여지고 있는 우리 나라 農書는 고려말 李兆年(1269~1343)이 엮은 「鷹鶻方」뿐이다. 그러나 이 농서는 매(鷹)를 조련시켜 수렵에 쓸 목적으로 쓰여진 농서로서 採取經濟時代에는 그 의미가 있을지언정 생산기술 중심의 농서로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더우기 이 農書는 극히 제한된 분야를 다룬 특수농서이다.

麗末 이전에도 농업생산이 발전하고 農法이 개선되어 왔으므로 농서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을 것이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응홀방」을 제외하고 이 시대의 농서로서 전하여진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시의 지도층이 농서를 편찬하지 않은 것으로 믿어지지만 일부 편찬이 되었더라도 다른 일반 典籍들과 같이 湮滅失傳된 것이 아닌가 믿어진다.

그러나 農書의 편찬이 없었다 하더라도 麗末 이전의 농업생산에 농서가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시대의 勸農 및 租稅政策을 보면 일정한 지식을 바탕으로 농업기술이나 生産力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麗末 이전의 농업지식을 살피기 위하여 농업지식을 필요로 하였던 농업의 바탕을 먼저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休閑農法을 중심으로 영농이 관행되어 왔다. 休閑農法은 施肥가 강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再生産을 위한 지력의 恢復을 風化라는 自然力과 燒田에 의존하는 作付方式이다. 休閑法에 대한 설명은 世宗代의 貢法論議에서 소박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즉 "古有一易再易之田 必其地力之可休者"(世宗實錄 卷112 世宗28年6月甲寅條)라 되어 있어 1년 또는 2년 休閑하는 농지는 반드시 地力을 쉬게 하자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鮮初까지 休閑하는 농지가 상당히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그 面積의 비율을 추정코자 14世紀 前半에 활약하던 李齊賢(1287~1367)의 「益齋亂藁」(史贊景王篇)를 보면 압록강 이남은 대부분 山이 많아 기름진 不易之田(連作農地)이 아주 근소하다고 되어 있다 (鴨綠以南 大抵皆山 肥膏不易之田 絶無而僅有也). 이는 적어도 14世紀 前半까지 우리 나라 농업은 1년 또는 2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休閑農業을 중요 作付方式으로 慣行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農地의 租稅政策과 관련된 農地等級을 보면 休閑의 정도에 따라 3等級으로 조정하고 있다. 李齊賢의 기록과 약 3世紀의 差異는 있으나 高麗文宗 8년(1054년)의 田品규정을 보면 上·中·下의 3等級으로 나누되 不易之地 즉 連作農地는 上이요, 1年休閑하는 農地가 中이며, 2년 休閑하는 農地를 下로 규정하고 있다(凡田品 不易之地爲上 一易之地爲中 再易之地爲下 : 高麗史 食貨 經理條). 이는 世宗때에 農地를 비옥도(생산력)에 따라 6등급으로 규정한 것과 퍽 대조적인 것으로 作付여부(休閑여부)로 등급을 판가름 한 것은 지력이 좋고 낮음보다는 몇 년만에 作物을 재식하였느냐가 더 중요한 등급의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連作하는 농지를 기준으로 그 농지에 어떤 作目을 재배하든 連作하는 山田이나 平田(논?)1結은 다같은 수준의 생산력을 올리는 것으로 보았으며, 1년 휴한하는 농지 2結은 平田 1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고, 2년 휴한하는 농지

3結은 平田1結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其不易山田一結準平田一結 一易田二結準平田一結 再易田三結準平田一結 : 高麗史 食貨 經理)

이와 같은 農地等級은 肥沃度나 作目(地目)에 따른 生產力의 차가 무시될 만큼 전국의 作目(地目)構成이 고르고 生產技術이 未發展한 상태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국 어느 곳의 무슨 地目에 어느 作物을 재배하든 현저하게 生產力의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농지등급제이다. 李齊賢의 말과 같이 肥沃한 平田(水稻作畓?)의 면적이 근소하고 대부분 田作農業의 作目構成을 고루 갖춘 農業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李朝初期만 하여도 전경지 면적 중 논의 면적비율이 30%에도 미달하였다는 李泰鎭씨의 究明이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田作 중심의 旱田農業은 水稻作도 休閑하였던 中國華北地方(齊民要術)의 農業과 유사한 것으로 이에 필요한 農業知識을 中國에서 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農業은 歷史 이래 어느 시대나 經國의 바탕이었기 때문에 麗朝에서도 忠烈王 元年(1275년)의 農務都監, 동24년(1298년)의 典農司, 忠宣王 元年(1309년)의 農務使 등의 勸農機構 설치와 金怡를 비롯한 累代의 지도층이 권농을 강조하여 왔다. 이에는 새로운 農業知識이 필요하고 그러한 지식이 국내에 없었다면 우리와 農業類型이 같은 中國農書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더우기 韓國文化는 古來로 中國文化의 깊은 영향권 안에 있었고 人類歷史의 기본적 기술이 中國에서 발생하여 왔으므로(J. Needham, 全相運) 高麗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웃인 中國은 확실히 科學이나 技術의 선진국임에 틀림없었다.

특히 麗末 이전에 中國은 많은 農書가 편찬보급되고 있었다. 王 및 天野씨 등에 따르면 漢代 이전에 「神農書」를 비롯한 「氾勝之書」「四民月令」 등 13종, 三國晋南北朝時代에 「齊民要述」 등 4종, 唐代에 「四時纂要」「茶經」 등 5종, 宋代에 「陳氏農書」「種藝必用」 등 43種, 元代에 「農桑輯要」「農桑衣食撮要」 등 9종, 麗末인 1400년 경까지의 明代에 「田家五行」 등 8종 등 모두 82종이나 되는 농서가 편찬되었다.

이중에서 「花木志」「竹譜」「茶經」「桐譜」「筍譜」「芍藥譜」「菊譜」「梅譜」「海棠譜」「蘭譜」「菌譜」「糖霜譜」 등의 花卉 特作 등에 관한 특수농서를 제외하여도 40종 이상의 일반농서가 있어 우리 나라에 도입이용될 농서자원은 충분하였다.

더우기 이때에는 中國과의 文化交流가 왕성하였을 뿐 아니라 蒙古支配下의 高麗는 元과 거의 一家的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李光麟) 中國農書 구독의 기회가 많았고 또한 용이하였다.

Ⅲ. 鮮初 이전에 이용된 주요 中國農書

이제 鮮初까지 文獻이나 資料상의 근거가 있는 것만을 골라 우리 나라 에서 이용되었던 中國農書들을 槪括的으로 살피고자 한다. 그러나 어느 特定農書가 언제부터 이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年代를 밝힌다는 것은 資料上의 制約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利用되기 數世紀 전에 中國에서 이미 편찬되었다하더라도 資料上의 根據가 있는 때부터 이용된 것으로 보고 풀이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이용되던 中國農書는 神話的인 「神農書」(BC27세기 이전)를 제외하면 「**氾勝之書**」였다. 王 및 天野씨 등에 따르면 本書의

册題가 저자의 성명 그대로 氾勝之였으나 후에 書字가 추가되어 「氾勝之書」가 되었다 한다. 본시 그의 姓은 凡씨였으나 秦亂 때 벽지인 氾水로 피난을 가 氾字로 개성하였다 하며 저술년대는 확실치 않으나 그가 前漢 成帝(BC 32~7) 때 議郎 직에 있었던 것을 상고하면 저술년대는 약 2,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漢代農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선구적 농서로 耕田, 收種, 禾穀類, 豆類, 채소류 등이 수록되었으며 王毓瑚씨는 본서를 華北의 代表적 旱地耕種書로 보고 있다.

金庠基, 金容燮, 屈萬里씨 등에 따르면 1091년경(宋 元祐6年)본서의 高麗復刊本이 逆으로 중국에 수출되었다고 하는데 이로 미루어 고려에서 이 시기 이전부터 널리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世宗 때에 편찬된 우리 나라 최초의 農書인 「農事直說」에도 일부 「氾勝之書」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최근의 사실로는 1950년대에 편찬된 「厚生錄」上卷 種蔬條에도 약 7% 가량이 「氾勝之書」에서 인용되고 있다.

6世紀初에 「氾勝之書」를 약 60% 가량 인용한 後魏(天野는 北魏) 賈思勰이 편찬한 **「齊民要述」**이 있다. 이는 근대 농학이 중국에 도입되기 전까지 중국농학의 모범서였다. 저술년대는 확실치 않으나 後魏 永熙~武定년간(532~544년)으로 이 시기는 당시의 농업생산을 좌우한 畜力農具(쟁기의 철제 볏과 보습)의 개량과 水力農具(물레방아)의 성행시기로 이와 같은 사정이 **耕種·園藝·蠶桑·竹木·特作·養畜·獸醫·食品**·잡방 등의 풀이에 잘 반영되고 있다. 저자는 山東省 臨淄부근의 옛 高陽太守로 있어 권농을 위해서 본서를 저술한 것이며 저자의 주거지였던 華北地方의 농법을 주로 다루고 있다. 金容燮씨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조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하며 復刊여부는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에 편찬된 「海東農書」「農政會要」 등에까지 많은 부분 인용되고 있다.

또 우리 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農書로 **「四時纂要」**는 唐末 韓鄂이 편찬한 것으로 後唐의 멸망이 935년인 것을 참고하면 10세기초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册題의 四時가 말해주듯 後漢 崔寔이 편찬한 「四民月令」을 본따 농가의 행사를 月令式으로 5卷에 기록한 책이다. 기술적 내용은 「四民月令」보다 발전되어 있으나 占候·禁忌사항 등 迷信的 내용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鮮初 이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復刊·重刊이 있었던 것 같으며 現存하는 復刊本은 蔚山郡下廂面(慶尙道左兵營)에서 1590년에 간행한 것이 있는데 이는 996년(宋太宗2年) 杭州의 民間刻本을 가져다 重刊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1490년경 우리 농업에 맞는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 「四時纂要抄」라는 册題로 姜希孟에 의해서 엮어진 抄錄本이 있다. 申泂이 1655년 「農家集成」을 엮을 때 그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켜 현존하고 있다. 篠田·天野 및 王씨 등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本書도 華北의 農書로 단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宋代(1149년)陳旉가 엮은 **「農書」**(통칭 陳氏農書)가 있다. 이는 元代 王禎이 엮은 「農書」(통칭 王氏王書)가 있어 册題만 표시하면 혼동되기 쉽다. 陳旉는 1076년에 태어나 北宋末~南宋初에 걸친 전란을 피하여 稻作地帶인 지금의 江蘇省 儀徵의 西山에 은거하여 본서를 엮었는데 상권에 經營과 栽培總論, 중권에 養牛, 하권에 蠶桑을 수록하고 있다. 王씨 등은 본서가 中國 江南의 農書를 대표할 뿐 아니라 「齊民要述」 이래 뛰어난 力作으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忠宣王이 1319년 李齊賢·權漢功 등과 江南을 여행할 때 수입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적어도 江南과 通交가 많았던

공민왕 때에 수입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李泰鎭씨는 본서가 麗末~鮮初의 우리 農法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世宗 19年6月 辛未의 傳旨와 「農事直說」 耕地條의 거의 類似한 文句比較로도 확인이 된다(傳旨 諸道監司(中略)又農書云 秋耕宜深 夏耕宜淺 春耕則 隨耕隨治 秋耕的待土色乾白乃治의 文句가 「農事直說」의 文句와 類似)본서는 최근의 우리 나라 「農政會要」같은 19世紀 중엽의 농서에도 인용되고 있다.

「**王氏農書**」는 1313년에 山東省 東平사람 王禎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며 일부 「陳氏農書」와 「農桑輯要」 등 많은 농서를 인용하고 있다. 그는 일찌기 華北 安徽省 旌德(1295년)과 江南의 江西省 永豊縣尹(1300년)을 거친 바 있어 中國南北의 농업을 두루 체험할 수 있었다. 본서는 農民을 교도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으로 널리 文獻을 참고하여 耕種法은 물론 특히 新製農具의 紹介가 많아 당시 중국의 농업생산에 크게 寄與된 農書다.

특히 稻作의 先進地인 江南農法과 華北의 農法도 조화있게 다룬 農書로 「農桑輯要」, 「農桑衣食撮要」(통칭農桑撮要)와 더불어 元의 三大官撰農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李光麟씨는 본서가 당대 최고의 농서일 뿐 아니라 元과 고려와의 관계로 보아 진즉 고려에 수입 이용되었을 것이라 하며 19世紀 초엽의 농서인 우리 나라 「海東農書」 등 각종 농서에 적지 아니 인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농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農書의 하나로 「**農桑輯要**」가 있는데 이는 元世祖 忽必烈의 명으로 元司農司가 1286년에 완성한 元代의 대표적 농서이다. 그후 1286년에 暢師文의 수정이 가해져 7卷3册으로 版刻된 후 본서 서문에 따르면 수없이 중간되고 있다. 天野씨 등은 본서를 일러 元나라 경영의 중요한 經國之書였다고 이르고 있으며 王씨 등은 「務本新書」「士農必用」「韓氏直說」과 더불어 실용가치가 매우 높은 黃河유역 중심의 북방농서로 보고 있다. 내용은 1권에 典訓, 2권에 農作物, 3권에 栽桑, 4권에 養蠶, 5권에 채소, 6권에 果樹와 경제수종, 7권에 畜產獸醫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賈思勰의 「齊民要述」을 많은 부분 인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李嵒이 고려 忠定王을 모시고 元에 갔다 올 때 수입한 것으로 李泰鎭씨에 따르면 忠定王 즉위 원년(1349년)에 「農桑輯要」 보급판이 국내에서 발간되었다 한다. 李光麟씨는 「牧隱集」을 인용, 李穡의 後序를 붙인 「農桑輯要」 복간본이 知陝州事 姜蓍에 의해서 陝川에서 발간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天野씨 등은 1372년(공민왕 21년) 경남 합천(당시 江陽)에서 개판된 사실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李穡의 後序와 더불어 "至元癸酉 八月 孟祺後序"라 되어 있어 姜蓍의 陝川本과 이를 다시 復刊한 孟祺後序本이 따로 있는 것 같다. 1639년에 中國의 徐光啓가 쓴 「農政全書」 인용문헌에 孟祺後序란 기록이 있음을 보면 서광계는 맹기본을 인용문헌으로 삼은 것이며 「氾勝之書」가 역으로 中國에 수출된 것처럼 합천의 孟祺本도 중국에 수출된 것이 아닌가 믿어진다. 이 孟祺本은 6.25動亂 전까지 宋錫夏씨가 소장하였던 것을 普成高校 관계자에게 이전되어 秘藏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농상집요는 1676년 朴世堂이 「穡經」을 편찬할 때 底本으로 활용되었고 最近의 농서인 「海東農書」에도 인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서 이외에 食品 및 養生書라고 볼 수 있는 「**山居四要**」가 있다. 이는 元代의 王汝懋가 1360년 攝生·養生·衛生·治生 등의 四要를 수록한 것으로 治生에는 種花果蔬法 등 원

예작물이 포함되어 있다. 天野씨는 1540년 우리 나라에서 복간본이 印刊되었다 하며(朝鮮醫學誌 273~274) 李盛雨씨는 徐居正(1420~1488)의 校正으로 世祖·成宗년간에 간행된 사실이 있다 한다.

이상 麗末 이전을 중심으로 中國農書 중 우리 나라에서 비교적 많이 이용되었던 것을 槪述하였다. 그러나 中國農書를 이용한 것은 이상의 例示뿐 아니라 이용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밖에 많은 농서들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다만 世宗 5年6月庚戌條(傳旨 諸道監司 考農桑輯要 四時纂要及 本國經驗之方)나, 世宗19年 6 月辛未條(農桑輯要曰(中略)又農書云(中略)又 四時纂要 肥田法(下略) 등으로 미루어 앞서 예시한 농서들이 보다 널리 이용되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이와 같이 外國의 농서, 그중에서도 中國 華北地方의 농서들이 보다 많이 이용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麗末 이전의 우리 나라 作付方式은 앞에서 말한대로 休閑農法이 支配的이었으며 그것은 14世紀까지도 田作物 중심의 旱地農業(dry land farming)인바 이와 같은 農法은 華北地方과 같은 作付方式이었다는 점이다.

黃河를 중심으로 한 華北은 유사 이래 중국문명의 주요 중심권의 하나이며 冀朝鼎씨에 따르면 黃河上流의 西安, 洛陽과 安陽을 포함한 지역은 중요한 중국의 北部經濟圈을 이루고 있어 古代經濟의 기반인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高麗는 이 華北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며 같은 作付方式이었다.

둘째로, 당시의 우리 농업의 技術水準이나 生産力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韓半島와 華北간의 風土的 差에서 오는 耕種法이나 生産力의 差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발전된 상태였다.

세째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高麗의 농업지식을 담은 農書가 없었는데 반하여 이러한 지식은 필요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겹쳐 부득이 麗末 이전은 中國農書의 직수입이나 국내복간 또는 重刊보급 등으로 필요한 지식을 얻었으며 이 때문에 중국 농서가 이용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Ⅳ. 休閑農法의 克服과 農業技術 改善

고려 후반부터 서서히 발전되어온 농업기술은 麗末~鮮初에 이르러 급진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李泰鎭·宮嶋씨 등은 농업기술 발달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 休閑農法의 극복이 우리 농업의 경우에는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休閑은 근본적으로 地力恢復을 위한 것인데 이의 극복은 인공적인 시비를 강화함으로써 地力의 회복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의 도입은 麗末 중국의 江南農法을 도입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程朱學 등 新儒學의 도입에 따른 빈번한 文化交流의 부산물이었다. 즉 강남의 新儒學의 도입은 新儒學 그 자체의 도입뿐 아니라 농업기술 등이 學問의 文化的 基盤을 함께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전기 한바 忠宣王 자신이 몸소 江南을 다녀왔을 뿐 아니라 충선왕은 1314년 燕京에 萬卷堂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고려의 學者들과 元의 文士들간에 學問的 交流를 촉진시키기 위함이었다. 또 이 해에 국내에서도 成均館에

서 직접 江南에 사람을 보내어 新書籍 1만 권을 구입하여온 사실이 있다(高麗史 忠肅王 元年6月 庚寅條). 新儒學은 1289년(고려 충렬왕 15년) 安珦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新儒學이 정치적인 차원에서까지 유리하게 된 것은 恭愍王代였으므로 江南과의 通交는 麗末에 와서 더욱 활발하였을 것이다.

江南은 宋代 후반 이후 新儒學의 본거지의 하나였을 뿐 아니라 南宋 때부터 장서가들이 많은 서적을 간행·판매한 고장이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이 學問의 성립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江南農法의 진원지였다.

江南은 漢代 이후 澤國이라고 부를 만큼 多雨濕潤하며 華北보다 寒暑의 차가 적은 유리한 농업지역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地理的 長點을 살려 소위 火耕水耨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稻作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농업의 선진지역이었다.

이 江南의 農法을 대표한 농서는 전기한바 「陳氏農書」나 「王氏農書」, 그리고 朱子의 勸農文들이다.

이들 江南의 農書들이나 農法의 導入은 新儒學受容 初期단계인 1362년 대표적인 당시의 儒學者 白文寶가 江南의 水車를 본따 이의 제조 보급을 건의한 데서 일단 확인이 된다(江淮之民, 爲農而不憂 水旱者 水車之力也 吾東方人治水者, 必引溝澮 不解水車易注). 백문보의 건의가 있기 13년 전 고려의 文士들은 華北의 「農桑輯要」를 구입하여 보급판을 간행한 사실로 미루어 새 기술로서의 강남농법은 이때까지 고려에 도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강남농법의 대강을 紹介코자 稻作기술을 대상으로 天野씨의 所論을 要略하면 다음과 같다. 稻作기술의 발전을 가장 손쉬웁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品種의 分化이다. 耕種技術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品種이 수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당시 강남의 벼 품종은 70일간에 성숙되는 極早生種을 비롯한 早中晩生의 구별이 있고 각 성숙기에 따른 지대별 적응품종이 수많이 분화되어 있었다. 예컨대 金成(耐旱性品種) 冷水烏(寒冷山間適應) 秧田稬 (耐肥性) 등인데 12~13세기에 江南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품종은 福建省 원산인 占城稻였고 이는 耐旱性을 구비한 품종이었다(1850년경 저술된 우리 나라 「農政會要」에도 이 品種에 대한 풀이가 있음). 이때 인디카(Indica) 타입은 秈이라 불리는 細長粒들인데 粒의 형태를 잘 나타낸 長腰稻라는 品種이 있었다 하며 이는 江南이 熱帶에 가까움에 원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많은 품종의 분화는 鮮初에 편찬된 「農事直說」의 벼 품종이 겨우 早晩 두 품종인데 비하여 비교가 안되는 발전이라 볼 수 있다.

또 種子處理에 있어서 竹籠에 넣어 流水에 3일간 침종하였다가 催芽를 시킨 후에 撒種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農事直說」의 내용보다 數世紀 앞선 것으로 보여진다.

播種은 乾畓이나 濕畓을 막론하고 本畓直播로 되어 오다가 宋代 中後半부터 移秧法이 稻作의 中心技術이 되었다. 「陳氏農書」「耕織圖詩」「朱子勸農文」 등에 나타난 해설을 보거나 이에 필요한 당시의 農具인 揷秧船·秧馬 등의 발달이 이양법의 발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가 이용하여 왔던 「齊民要術」(6世紀)에는 벼도 休閑農業으로 記錄되었고 「四時纂要」(10世紀)에 와서야 이양법이 기록되고 있는데 10世紀 이후 唐末~宋代에 와서 이 이앙법은 江南에서 급격히 발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宋代에 水田種麥(稻+麥=1年間 2 作)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것

을 보면 移秧法은 이때 거의 보편화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水田種麥은 보리의 성숙기와 벼의 幼苗~成苗期가 경합되기 때문에 이앙법의 실시없이는 불가능한 作付體系이다.

그런데 당시의 우리 慣行農業을 반영한 15世紀초의 「農事直說」을 보면 直播法을 우선적으로 풀이하고 있어 이 면에서도 江南의 農法은 우리보다 수세기 앞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앙법은 本畓의 除草努力을 크게 줄이고 적은 面積에서 못자리를 집중관리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毛作의 導入을 가능케 한다는 면에서 당시로서는 크게 선진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江南의 稻作기술로 그 원리가 지금과 大差없는 것은 물관리 기술이다. 이는 기온의 冷溫에 따라 물의 깊이를 조절하고 中間落水를 통하여 水草인 雜草를 枯死 또는 억제하며 논토양의 통기를 조장하는 기술들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江南의 농업이 우리 농업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休閑農法의 극복이며 이는 地力과 水利 여하에 달려있는 기술의 요체이다.

「王氏農書」의 관개용구를 보면 1~2丈의 높이에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龍骨車(龍尾車?)踏車(人踏飜車?) 등이 있는데 移秧法의 보급을 위해서 前記한 바와 같이 백문보가 건의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水車의 보급이 아닌가 믿어진다(又民得兼務於下種揷秧則 亦可以備旱 不失穀種 : 高麗史79 食貨 農桑條).

또 太祖 4 년(1395년) 鄭芬의 수리법 개선 건의도 移秧法의 보급에 따른 지도층의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降雨量의 측정법도 水稻移秧法 보급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休閑法 극복에 水利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地力의 問題인바 「陳氏農書」의 秋深耕·春淺耕은 오늘날에도 장려되는 경운법의 원리이다. 이는 越冬 중에 風化를 촉진시키는 地力增進의 기초 수단이다. 또 추수 후 2-3회 거듭하는 경운횟수도 오늘날과 다를 바 없는 땅다루기의 한 방법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施肥問題인데 그 재료로 「陳氏農書」는 썩은 볏짚, 敗葉, 根荄, 麻枯, 糠麩, 粕類 등과 草木灰 등을 들고 있다. 華北의 지력증진 수단은 泥土와 草木灰시용, 그리고 綠豆를 심어 綠肥로 갈아 엎는 것 등인데 이것은 어느 경우나 休閑이 전제된 것이었다. 江南은 재료 면에서 다양할 뿐 아니라 斷藁, 連枝杼葉 등을 외양간에 넣어 牛馬糞과 같이 섞고 밟게하여 양질의 踏糞을 생산, 시용하였을 뿐 아니라 石灰와 人糞 및 尿灰사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客土法을 고안하여 낸 것들이다. 客土는 논의 老朽化畓 또는 사질답의 개량을 위해서 현재에도 쓰고 있는 지력증진 수단이며 石灰는 土性改良劑로 현재에도 널리 쓰이는 비료이다. 陳旉가 특히 지력증진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牛馬糞보다도 量的인 제약을 덜 받는 人糞尿의 확보이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糞屋설치를 강조한 점이다. 풍우를 가리도록 糞屋을 설치함은 量의 허실을 막고 肥效를 보전할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江南의 농법은 최소한 수도작에 관한 한 「농사직설」 이전의 우리 농업보다 월등히 발전된 기술이며 이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은 休閑農法의 극복을 통하여 麗末鮮初의 우리 生產水準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가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을 촉진시켰다고 인정되는 것은 鮮初의 食糧사정이었다. 世宗代에 「救荒辟穀方」을 제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후일의 「救荒撮要」 및 同諺解本 편찬의 기원이 되었다. 救荒書의 本旨는 말할 것도 없이 굶주리는 백성에게 草根木皮

를 먹이자는 것이다. 食品書로서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책이 일반 식품서가 아닌 官撰의 救荒書였다는 것은 食糧不足에서 오는 支配層의 자기고민을 잘 반영한 糧政의 産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食糧事情下에서는 증산을 위한 신기술만 알았다면 生産農民 스스로의 노력이 능동적으로 기술개선에 노력하였을 것임은 가히 추측할 수 있는 문제이다.

더우기 李朝開國 이래 指導層은 적지 않는 勸農政策을 시행하여 왔다. 太祖 4 年 州府郡縣마다 그 고장의 廉幹한 閑良으로 하여금 勸農官을 삼았다든지(太祖實錄 卷8 太祖 4 年 7 月辛酉條), 成宗21年 面마다 권농관을 둔 사실(成宗實錄 卷245 成宗21년 閏9月 甲申條)들은 休閑法을 극복하고 신기술을 정착시키는데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李春寧씨는 鮮初의 勸農政策을 勸農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强農政策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지도층의 勸農에 대한 열의를 반영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Ⅴ. 農法改善에 따른 過渡期農書(抄錄本)의 形成

이와 같은 連作面積의 增加와 稻作技術의 개선은 他作物에서도 耕種技術개선이 서서히 진행되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기술의 개선은 旱地田作農業을 중심으로 엮어진 華北의 農書들이 신지식원으로서 빛을 잃게 하였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麗末의 木花 등 새로운 作物의 도입에 따라 作付組織이나 耕種方式에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鮮初의 농업사정을 잘 반영한 것이 「農事直說」의 序文이다. 이 서문은 「농사직설」이 편찬된 동기를 "以五方風土不同 樹藝之法 各有己宜 不可盡同古書"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중에 '不可盡同古書'라고 하는 말은 종래 이용하던 華北의 農書가 당시의 농업실정에 맞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말은 中國農書 이용에서 미처 感知하지 못하였던 中國과의 風土的 差異를 인정한 것이며, 그만큼 鮮初의 농업기술과 우리 風土는 華北의 그것보다 발전되고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樹藝之法 各有己宜"는 華北의 耕種法보다 발전된 江南의 耕種法을 체득한 데서 오는 새로운 인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國農書는 직접 그대로는 우리의 농업생산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으며 우리의 농업에 적합한 새로운 農書가 필요하게 되었다. 農書는 그것이 편찬된 지역과 당시의 농업사정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농서의 내용과 같은 농업사정이 지속되는 한 그 농서는 유효한 것이지만 농서의 내용보다 현실적 사정이 더 발전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農書는 그 효용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은 與件을 배경으로 편찬된 농서가 1429년의 「農事直說」이다. 「농사직설」은 일부 앞서 정착된 三南地方의 農業技術을 北쪽의 농업에 보급코자 편찬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는 農書편찬의 필요성은 「농사직설」을 편찬하기 이전부터 진즉 느껴 온 것 같다.

「농사직설」이 편찬되기 29년 전인 1399년(定宗元年)에 平壤伯 趙浚 등에 의해서 「**新編集成馬醫方**」이 편찬되었는데 그 서문에 이르기를 中國伯樂의 글(相馬經)과 元나라의 비결인 여러 서지를 초록(撮書)하고 東人(한국인)이 경험하고 시험해본 효과있는 수의술을 보태어 이 「馬醫書」를 편찬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는 우리 風土에 맞는 농서를 필요로 한 것과 같이 수의술에 있

어서도 우리 나라 馬種과 中國의 馬品種이 다를 뿐더러 이 馬品種에게만 있는 風土病 등이 다르므로 韓國的 獸醫書가 필요하였던 것 같다.

이와 같은 농업기술이나 수의술의 개선에 따른 새로운 農書의 요청은 中國에서도 마찬가지였다. 江南의 稻作技術 중심의 선진농법을 華北의 농업체계에 보태어 보완코자 南北의 농업을 고루 갖춘 새로운 농서가 편찬되었으니 앞에서 언급한 1313년, 王禎의 農書가 바로 그것이다. 「農事直說」 편찬은 「王氏農書」보다 약 1세기 뒤늦게 이루어졌지만 그 동기와 경위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이와 같은 동기와 배경으로 「農事直說」이라는 新農書가 편찬되었지만 처음부터 직접 우리 농서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신농서 편찬이용에 앞선 과도기적 조치가 선행되었다. 太宗께서 儒臣들에게 명하여 옛농서(中國農書)에서 간절히 필요한 말만을 취하여 이를 엮되 鄕言으로 註를 달아 널리 頒行하라는 지시(嘗命儒臣 掇取古農書切用之語 附註鄕言 刊板頒行 : 자료, 세종권농교문)는 그와 같은 과도기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옛 農書 중 우리 농업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또 알기 쉬운 鄕言으로 註를 달라는 말이나 알기 쉬운 方言으로 농서를 번역하여 中外에 廣布하라는 지시(命儒臣 以方言譯農書 廣布中外) 등은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확산을 꾀하자는 의도일 것이다. 사실상 농업기술을 알아야 할 사람은 儒者나 閑良이 아니고 有識하지 못한 농민들이었으며 가령 有識한 농민이나 監考(권농담당)라 하더라도 까다로운 華北의 농업용어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太宗의 지시와 당시 우리 농업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우리의 過渡期的 農書들을 살피고자 한다.

「**養蠶經驗撮要**」는 1415년 右代言 韓尙德이 太宗의 뜻을 받들어 요긴한 내용을 초록하고 吏讀로 번역한 養蠶에 관한 農書다(永樂十三年五月日 右代言 韓尙德 敬奉王旨 飜譯蠶書 刊行頒布). 撮要란 요점을 간추렸다는 뜻인바 韓尙德이 母本으로 사용한 농서는 「農桑輯要」 卷四의 養蠶부문이었다(尙德又啓曰 元朝農桑輯要 有益於民 但其文雅 人人未易通曉 願譯以本國俚語 太宗實錄 卷28). 이 養蠶부문의 약 20% 가량을 초록하고 번역하였는데 그 例文을 들면 "蠶養物 大惡水故 食而不飮"이라 되어 있는 原文을 "蠶段陽物是乎等用良水氣乙厭却桑葉叱分喫破爲遣飮水不冬"이라고 이두로 풀이하고 있어 吏讀를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도리어 번역문이 難解하기 그지없다. 이 「양잠경험촬요」 끝에 "是月告訖聿頒諸郡"이라 되어 있어 인간한 것을 각 郡마다 나누어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양잠경험촬요」와 유사한 초록본으로 「**養蠶方**」이 大提學 李行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이 「養蠶方」에는 번역이 붙어 있지 않아 議政府舍人 郭存中이 이에 번역을 붙여 1417년 또 다른 번역본인 「養蠶方」을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번역본은 현존하지 않아 내용은 알 수 없으나 母本은 「양잠경험촬요」와 같이 「농상집요」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攷事撮要」八道册板目錄에는 「九成宮蠶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李光麟씨는 「**九成宮蠶書**」를 「양잠경험촬요」의 別稱으로 보고 있다. 九成宮은 唐太宗의 離宮인 바 이곳에서 甘泉이 솟아 올라 이를 예찬하기 위하여 일찌기 九成宮醴泉銘을 지어 당대의 書藝家 歐陽詢에게 이를 쓰도록 한 바 있는데 그후 구양순의 書體를 일

명 九成宮體라 일렀다. 1415년 「양잠경험촬요」를 板刻할 때 書體를 구성궁체 즉 구양순체로 썼기 때문에 「양잠경험촬요」를 「구성궁잠서」로도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 「**養蠶經**」이란 蠶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도 「養蠶經驗撮要」의 별칭이라고 믿어진다. 「양잠경험촬요」의 표지에는 「養蠶經」이라 되어 있고 內題는 「양잠경험촬요」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養蠶要義**」가 姜希孟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姜希孟의 「四時纂要抄」와 편찬의 배열이나 文章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아(간혹 한두 글자의 차이는 있음)「사시찬요」 초록본 중 양잠부분만 떼어 내어 「養蠶要義」라 이름붙인 것 같다. 한편 世祖 5年 藝文館 直提學 徐岡과 司憲府監察 李覲이 찬술한 「**蠶書註解**」, 同年 10月에 上護軍 梁誠之가 엮은 「**蠶書**」, 同 7年 3月에 知中樞府事 崔恒, 右承旨 韓繼禧 등 文臣 30여 명이 만든 「**諺解蠶書**」, 中宗 13年 4月에 金安國의 「**諺解蠶書**」 등이 각각 李朝實錄에 보이나 현재 전해져 있지는 않다. 이상에서 자료가 있는 것을 근거로 양잠에 관한 과도기 농서를 살피었으나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 경종농업에 관한 과도기적 농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예로 太宗이 儒臣들에게 方言으로 農書를 번역하라는 지시나 "掇取切用之語"(抄錄)하라는 지시는 蠶書에 국한한 것이 아닐 뿐더러 太宗實錄 卷29(太宗 8年 3月 己巳條)에 나오는 잇꽃(紅花)재배에 있어 春種法만 알고 있는 농민들에게 中國의 春夏種法을 알리기 위하여 「農桑輯要」의 種紅花法을 급히 초록하여 각도 관찰사에게 내린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世宗實錄」 卷17(4年 8月 丙午條)에 농민이 관행하고 있는 3年 1作의 보리재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農桑輯要」의 농법을 참고하여야 된다는 李原, 許稠 등의 啓文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畜產獸醫관계를 보면 太宗 16年 5月 戊戌條에 典廐署와 禮賓寺에 명하여 家畜의 飼養法을 「農桑輯要」의 내용을 참고토록 하라고 되어 있어 이때에도 초록본이나 번역본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一般作物이나 畜產獸醫, 그리고 養蠶 등 필요에 따라 과도기적 농서인 抄錄本이나 번역본은 농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초록 또는 번역본이 현재까지 전하여진 것이 없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과도기 농서는 「農事直說」 이전의 鮮初에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농사직설」은 중요 농작물(대마, 벼, 기장, 수수, 피, 콩, 팥, 녹두, 대소맥, 참깨, 메밀, 들깨)에 국한된 간단한 농서이므로 그 이후에도 다양한 내용을 초록코자 필요에 따라 계속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1940년경 姜孟希의 「**四時纂要抄**」나 17세기 중엽에 李曙가 中國의 「馬經大全」을 抄集한 「**馬經抄集諺解**」 그리고 초록자와 연대 미상의 「**馬經抄**」 「**相馬經**」과 1554年의 「**救荒撮要諺解**」등이 그것이다. 다만 抄錄形態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나 번역에 있어서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吏讀를 쓰지 않고 한글로 諺解함으로써 漢文을 익히기 어려운 농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한 점이 과도기 농서로서의 시대적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鮮初의 농서번역은 모두 吏讀로 되어 있어 吏讀 그 자체가 漢文이므로 무식한 농민에게는 이 또한 解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鮮初의 번역본은 일차적으로 農民用이라기보다는 勸農을 직접 담당한 勸農官이나 監考 그리고 地方官 등 現代의 表現으로 農村指導官用 敎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震檀學會, 「韓國史」, 中世篇(經濟)1973.

李春寧, 「李朝農業技術史」, p. 38, 1964.

J.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 4 (日譯), 1981.

天野元之助, 「中國農業史研究」 3章 2節, 1979.

————, 「中國古農書考」, 1975.

西鄕靜夫, 「朝鮮農政史考」 3章, 1921.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農業變動, 農學思想), 1979.

———, 「農書 I 」(農書小史), 1981.

王毓瑚, 「中國農學書錄」, 1975.

申瑾澈(譯), 「古典韓國馬醫方書」(解題)1976.

金榮鎭, 「農林水產古文獻備要」, 1982.

_____, 「蠶絲學古典研究」, 1972.

_____, "18世紀中葉의 綜合農書, 厚生錄에 關한 研究,"「農村經濟」, (第5卷第2號), 1983.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2章), 1979.

李光麟, "養蠶經驗撮要에 對하여"(歷史學報28) 1965.

_____, 「李朝水利史研究」, 1961.

李泰鎭, 「高麗末, 朝鮮初의 社會變化」, 1982.

_____, "15, 16세기 新儒學 정착의 사회경제적배경," 1981.

官嶋博史, 「朝鮮農業史에 있어서의 15世紀」((朝鮮史叢 3), 1980.

_____, 「太宗實錄」卷 29(8年 8月己巳條), 1408.

李盛雨, 「韓國食經大典」, 1981.

申 泂, 「農家集成」(勸農敎文), 1655.